

한국의 라틴아메리카인 Latin American People in Korea

한국 사랑 20년

도를리스카 일라레스

흔히 언어, 생활양식, 풍습, 전통, 가치관 등의 차이는 이민자가 낯선 땅을 처음 밟을 때 부딪히는 상황이라고 한다. 따라서 어느 한 나라에 완전히 동화되려면 그 나라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이러한 요소를 받아들이고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갖가지 상황을 경험하면서 한국인의 삶과 정서를 이해하게 되었다. 이 글은 제2의 조국인 한국에서 지난 20년을 살아오면서 겪은 생생한 경험담을 담은 것이다.

낯설

1991년 10월 3일 오후 6시, 기장이 김포국제공항에 곧 착륙한다고 방송했다. 맥박이 갑자기 빨라지기 시작했다. 1988년 올림픽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들어보지 못한, 극동 아시아의 한국 땅을 밟는다고 생각하니 너무나도 기뻐다. 지구 반대편에 사는 우리 페루인 대부분은 한국이 큰 전쟁을 치르고 분단되었다는 정도밖에 아는 것이 없었다. 목을 쭉 내밀어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는데 유난히 눈길을 끄는 것이 있었다. 비행기가 온통 형형색색 불빛으로 가득 찬 도시로 하강하는 중에 십자가 모양의 빨간



서울 하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붉은 십자가

네온사인이었다. 나는 서울에 착륙한다는 방송을 꿈결에 들었거나 비행기가 항로를 이탈해 다른 곳으로 간 것 아닌지 의아해했다. 내가 상상하던 동양의 도시 풍경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결국 나는 제대로 한국에 도착하고 있는 건지 스투어디스에게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스투어디스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럴 수가! 아니 이 도시에 국제적십자사 사무실이 이토록 많을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적십자사가 빨간 십자가 표시를 달고 있기 때문에 착각한 것이다. 나는 곧 이런 십자가가 한국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공항에는 한국에 체재하는 동안 내게 잠자리를 제공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공항에서 내가 머물 합정동으로 가는 길은 너무도 아름다웠다. 상업지역은 여기저기 형형색색의 불빛으로 가득해서 크리스마스 직전 같은 인상을 주었다. 집에 도착하자 나를 마중 나온 친구들이 풍성한 저

녁을 차려주었다. 식탁은 갖가지 반찬으로 가득 찼는데, 주인아주머니가 그날의 주메뉴로 그때까지 한 번도 구경해보지 못한 몇 가지 해물(미더덕, 우렁이)을 넣은 된장찌개를 내왔다. 지금이야 고백하건대, 그 된장찌개는



된장찌개

아주 먹음직스럽게 보이긴 했지만 아주 이상하게 생겨먹은 해물과 역한 냄새 때문에 떠먹어볼 엄두조차 나지 않았다. 그렇지만 나는 이 나라에 올 때부터 낯선 문화에 적응하고 모든 것을 즐기라는 각오가 되어 있었다. 더구나 어떤 음식이든지 아주 정성을 들여 만든 음식이라면 내 입맛과 위장을 만족시켜 주고, 나아가 에너지와 건강을 공급해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그래서 된장찌개를 다 비울 수 있었다. 하지만 된장 냄새는 마치 떨어질 수 없는 동반자처럼 콧속 깊이 배어 무려 두 달 뒤에야 사라졌다.

도착한 지 며칠 후 시내 구경을 하러 외출했다. 전철을 타고 보니 거의 모든 사람이 우아하게 옷을 입고 있었다. 많은 사람이 마치 나들이를 가는 듯 말쑥하게 정장차림이었다. 무슨 명절이라 모두들 어딘가로 가는 듯 싶었다. 이제 막 도착해서 명절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어보았다. 특별한 날이 아니라 평일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렇게 잘 차려입은 모든 사람이 직장 또는 각자 갈 길로 가던 중이었던 것이다.

2~3주 정도 지난 뒤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다. 10월 중순의 가을이었지만 꽤나 추웠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가을 날씨와 바람이 선선한 느낌을 주는 정도겠지만, 겨울이 그리 춥지 않은 페루에서 온 나에게는 그날 아침 영상 18도는 한겨울 날씨나 다를 바 없었다. 나는 단단히 차려입고 대

학교로 갔다. 두꺼운 옷을 입고, 그 위에 외투를 걸치고, 목도리를 두르고, 긴 장화구두를 신고, 모자와 장갑까지 껴다. 그렇게 길을 걷고 전철에 올라탔는데, 사람들이 계속 쳐다보는 것이었다. 외국인이라 그러나보나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내 옷차림 때문이었다. 그들 역시 그런대로 따뜻하게 입긴 했지만, 내가 입은 모양새는 철에 맞지 않게 영락없이 엄동설한이었던 것이다. 전철은 만원이었고, 실내는 더웠다. 나는 숨쉬기조차 힘들어졌지만 옷을 벗을 방법이 없었다. 대학에 도착할 때까지 옷차림으로 인한 수난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말 수난

내가 거주하던 숙소는 작은 길로 통하는 후문이 있고, 그 길을 따라 곧바로 전철역으로 갈 수 있었다. 길을 따라가다 보면 길가에 앉아서 얘기를 주고받거나 채소를 씻거나 뭘 먹고 있는 아주머니들과 자주 만났다. 나는 모르는 사람끼리도 서로 마주칠 때 인사를 하는 문화, 특히 아침인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에서 온 사람인지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고 내가 배운 첫 한국어를 사용하여 아주머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처음에는 나를 쳐다보고 웃기만 했지만, 계속해서 인사를 건네자 사랑과 관심을 쏟기 시작했다. 매번 길거리에서 마주칠 때마다 아주머니들은 샌드위치를 주기도 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추울 때면 몸을 덥히라고, 더울 때는 몸을 식히라고 한국의 전통음료를 주었다. 그게 어찌나 정겨웠던지 그분들의 배려가 가족과 조국에 대한 향수를 그나마 달래주었다. 참 신기했던 것은 내가 인사를 드리면 그분들이 온갖 질문을 쉴 새 없이 쏟아붓는다는 것이었다. 나는 질문마다 대답하느라 애쓰다가 한국어 수업에 여러 번 늦었다. 한국어 실력이 짧다 보니 적절한 단어를 찾고 또 찾았고, 그렇게 대답이 굼뜨다보면 답답하고 해서 손짓

발짓으로 나를 이해시키곤 했다. 아침마다 쏟아지는 질문에 대답할 시간을 더 내려고 조금 일찍 집을 나서기로 마음먹었다. 어떤 때는 아주머니들이 구체적인 질문을 해왔다. “어디 가요?”, “밥 먹었어요?”하고. 이런 질문은 거의 매번 듣는 것이었다. 왜 그렇게 매번 같은 질문을 하는지 알 길이 없었다. 이미 내가 대학에 다니며, 아침에는 밀크커피만 마신다고 설명했는데도. 수업시간에 교수님에게 왜 아주머니들이 매번 같은 질문을 하는지, 내 한국어 실력이 부족한 탓에 그러는지 물어보았다. 교수님은 아주머니들이 아침마다 그렇게 묻는 것은 인사 형식 때문이지, 상대방에게 설명을 바라고 묻는 게 아니라고 대답해주셨다. 나는 좀 창피해져서 미소를 지었다. 사실 어떨 때는, 어디에 가는지 혹은 식사를 했는지 등의 질문에 일일이 대답하기 위해 끙끙거리는데, 아주머니들이 서둘러 “나중에 봐요” 또는 “어서 어서 가요”라고 손짓을 하는 바람에 대답도 바라지 않으면서 굳이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혼자 툭툭댔기 때문이다.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난 후에서야 비로소 그 질문이 안부인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 학기를 마치자 교수님들은 내게, 한국인 가정집에서 홈스테이하면서 말을 배우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씀해 주셨다. 나는 꽤 젊은 부부가 사는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 부부에게는 다섯 달된 아기가 있었다. 부인은 아기를 돌보려고 직장을 그만둔 상태였다. 하루 종일 집에서 혼자 지내다 저녁 7시 이후 저녁을 차려놓고 남편을 기다리는데, 남편은 일 때문에 집에 일찍 귀가하는 날이 거의 없고, 때로는 아예 다음날에야 들어온다고 하소연했다. 어느 날 밤 나는, 아이를 재워 놓고 내내 기다리고 있는 부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곁에 다가갔다. 부인은 결혼하기 전의 환상과 결혼할 때의 감정, 그리고 실현되지 못한 과거의 꿈과 환상 때문에 겪는 슬픔과 좌절감을 얘기해주었고, 그런 부인에게 연민을 느끼게 되었다. 부인은 남편을 언급할 때마다 ‘우리 남편’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복수 개념을 가진 단어라는 것을 배운지라, ‘우리 남편’을 곧이곧대로 해

석하면 ‘우리 두 사람의 남편’이라는 뜻을 알았다. 하지만 곧이곧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상황인지라, 제3자를 정중하게 표현하는 방식이겠거니, 지레짐작했다. 그렇게 밤은 깊어가고 우리는 각자 방으로 들어갔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부인에게 물었다. “우리 남편 어젯밤에 들어오셨나요?” 그 말을 듣자 부인은 눈을 부릅뜨면서 불쾌한 어조로 말했다. “그 사람은 맥의 남편이 아니에요.” 나는 너무 부끄러운 나머지, 한국말이 짧아서 그런 것이니 이해해 달라고 사정하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언어 때문에 생긴 문제와 오해는 한국에 사는 동안 끊이지 않았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더 많은 사람을 알게 되고, 그중에는 나를 자기식구처럼 따뜻하게 대해준 진정한 친구도 있었다. 한번은 자주 방문하던 친구의 부모님이 태국으로 여행을 떠나셨다. 일주일만 지났다. 여행에서 돌아온 친구 부모님은 여행지에서 있었던 아름다운 경험을 들려주었다. 아버님은 자기 친구들과 함께 다시 가봤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 은퇴를 하셨는지라 여유 시간이 있으셨다. 며칠 지나지 않아 나는 누군가에게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받았다. 그 전화를 받고, 아버님이 친구들과 함께 다시 태국으로 여행가셨다고 생각하곤 몹시 흥분해서 대답했다. “그래! 아버님이 다시 여행을 떠나셨구나! 그토록 원하시더니 말이야!” 그러자 상대방이 침묵했다. 이윽고 친구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다는 의미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한국에서 ‘돌아가셨어요’라는 말은 ‘다시 가다’는 뜻 외에도 ‘저 세상으로 가다’라는 뜻도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나는 즉시 친구 집으로 달려가 일주일 동안 곁에 머물렀다. 그때는 가족 중 누가 내게 전화했는지 몰랐다. 감히 물어볼 용기조차 없었다. 몇 년이 지난 후에야 친구 가족과 함께 모였을 때, 그 전화통화의 장본인이 그 일을 기억해냈다. 우리는 그때 이야기를 나누면서 웃음보가 터졌고, 그렇게 나의 미안한 마음도 누그러지게 되었다.

다가가기

한국어 실력이 한층 나아지자 나는 자원봉사 차원에서 공단지구에서 살아보기로 작정했다. 그곳에는 한국인 노동자와 지역사회를 지원할 목적으로 지어진 센터가 있었다. 센터에서는 한국어, 영어, 한문, 환경보존, 비누제조 등 갖가지를 가르쳤다. 다른 센터와 차이점이 있다면 항상 큰 밥통과 김치가 준비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센터에 들어오는 사람이면 누구나 “식사 하셨습니까?”, “드세요!”하는 인사말을 들었다. 모든 사람과 함께 밥통을 나눈다는 것이 참으로 보기 좋았다. 그곳에서는 연대와 공동체 의식의 분위기를 호흡할 수 있었다. 센터에는 지방출신 젊은 청년들도 드나들었다. 초등학교 1~2학년 과정도 마치지 못했는지, 읽고 쓰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한국이 자존심이 매우 강한 사회라서 그런지 사람들 앞에서 쉽게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런 이들을 위한 특별 강좌를 개설해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싶었다. 그래서 ‘영어-한국어’라는 이름의 언어강좌를 개설하는 것이 적절하겠다고 판단했다.

때마침 그 지역에 럭키금성사에서 연수를 받으려고 많은 필리핀 노동자들이 왔다. 우리는 이들도 한국어강좌 프로그램에 합류시키려고 초청하게 되었고, 결국 참가자 수가 엄청 많이 늘어났다. 그러나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요원은 하나밖에 없었다. 그래서 한국어 회화 실습을 담당시킬 겸해서 한국 청년들을 쓰게 되면 이들 역시 한국어를 더욱 잘고 닦을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했다. 젊은 한국 노동자들은 그렇게 일주일에 두 번씩 외국학생들과 함께, 배운 단어와 문장들을 연습했다. 그들은 일찌감치 센터에 와서 학습 준비를 했으며, 그들의 발전은 정말 놀라운 것이었다. 몇 달이 지난 뒤 이들은 이미 능숙하게 읽을 수 있었고, 쓰기도 믿을 수 없을 만큼 발전했다. 이렇게 자존감과 자신감이 생기자 영어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오자 그들 중 일부는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의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투표일이 되자 우리 모두는 한자리에 모여 앉아 TV를 통해 결과를 지켜보았다. 지지하던 후보가 낙선하자 몹시 슬퍼하고 낙심에 빠진 그들의 모습을 보고 나는 “자, 자, 힘을 내요! 다음번에는 잘될 거예요!”하고 격려를 해줬다. 그러자 그들 중 하나가 통명스럽게 받아쳤다. “적어도 우리 당선자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당신네 나라처럼 페루인 조상도 아닌 대통령과는 다르단 말이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격려해주고자 한 말에 그토록 격한 반응이 돌아올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비록 동의하기는 쉽지 않았지만, 그 사람의 반응이 한국이 단일 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인데다가, 한국인에게는 민족 문제가 대단히 중요해서 그런가보다 하고 이해하고자 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한국인과 결코 하나가 될 수는 없는 것인가 하는 생각에 몹시 슬퍼졌다. 하지만 세월은 내 생각이 틀렸음을 입증했다. 나와 그들은 갈수록 서로를 더욱 알게 되었고,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우정도 깊어지고, 이제는 친구들 결혼식은 물론 아이가 태어나거나 가족모임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 속으로 한 발 더

한국에서는 나이가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높임말과 낮춤말을 결정하기 위해 나이를 묻고는 한다. ‘어른’이라는 말은 지혜와 경륜을 뜻하는 것 외에도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지위를 나타낸다. 나는 몇 년이 흐른 뒤 서울교구의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하게 되었으며, 이후 알코올중독자 재활센터 소장직을 맡게 되었다. 재활센터 입소자는 모두 남성이었는데, 대부분 나보다 나이가 많았다. 나는 서른다섯 살이었지만 그들을 대할 때에 나의 지위에 대한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 나이 들게 보이려고 의도적으로 옷을 젊잖게 입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은 날 보고 ‘누나’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나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조차 ‘누님’이라고 불려서

신기하기만 했다.

페루인에게 춤이 없는 파티는 한국에서 음식이 없는 파티나 마찬가지이다. 우리 페루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춤을 추고, 생일파티나 축제에서도 어김없이 춤을 춘다. 아예 “춤이 없으면 삶도 없다”라고 말할 정도다. 나는 한국에서도 춤을 추고 싶었다. 그래서 누군가 생일을 거론하면 그 즉시 춤과 연관시켰다. 한번은 친구 생일 파티에 초대받아 얼마나 흥분했는지 모른다. 왜냐하면 파티에 초대 받았으니 이제 춤을 추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는 파티를 위해 옷을 손질했고, 소리를 더 잘 내려고 굽이 있는 신발도 하나 골라 놓았다. 마침내 파티일이 왔다. 근데 세상에! 초대받은 집에 도착했을 때 내게 처음 요구한 것이 구두를 벗으라는 것이었다. 아무튼 파티가 시작되었다. 맛있는 음식도 듬뿍 나오고, 다 좋았다. 하지만 기다리고 기다리던 춤추는 시간은 오지 않는 것이었다. 춤도 추지 않고 파티가 끝나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친구한테 언제 음악이 나오고 춤을 시작하느냐고 물었다. 친구는 씩 웃으면서 생일파티에서는 춤을 추지 않으며, 더욱이 집안에서는 춤을 추지 않는다고 말했다. 내 나름 해석하기를 이곳처럼 유교사회에서는 춤과 몸동작은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하층민의 일로 여겨지기에, 내 지위에 어울리는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살아가면서 어떤 이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다른 이에게는 없어도 되는 것임을 새삼 깨달았다.

외국인에 대해 궁금해 하는 한국 사람들의 호기심은 믿을 수 없을 정도여서, 때로는 예의 없는 행동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호기심은 대다수 외국인에게는 강압으로 느껴진다. 어디에서 왔는지,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지, 한국 음식이 필요하지는 않은지, 얼마나 머물 계획인지,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등등을 알고자 한다. 한번은 물건을 사러 가서 진열대에서 정말 예쁘고 우아한 바지 하나를 봤다. 입어보고 사도 되냐고 물으니 그 점원 왈, “안 돼요, 너무 비싸요” 하고는 값이 덜 나

가는 다른 물건을 보여주었다. 난 비싸더라도 그 물건 좀 달라고 요구했다. 실은 그 바지를 살 마음이었는데 점원의 거부 반응에 좀 짜증이 났다. 점원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까봐 걱정되어서 그렇게 말했다고 해명했다. 외국인으로서 자국민보다 소비가 더 클 것이기 때문에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부담이 적은 물건을 보여줌으로써 나를 보호해주려던 의도였다는 것이었다.

내가 이 나라에서 발견한 우정과 관심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다. 나는 오래전부터 같은 곳에 살고 있고, 매번 같은 매장에서 구매한다. 그 매장의 모든 점원이 나를 잘 안다. 한 번은 나를 만나려고 한국에 온 조카와 함께 그 매장에 갔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나는 부득이하게 두 달간 집을 비우게 되었다. 한국어도 모르는 조카가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나 걱정이 많이 되었다. 어떻게 지내나 궁금해서 조카에게 전화를 해보니, 매장에 갈 때마다 모든 점원이 다가와서 평소 내가 구입하던 물건을 바구니에 가득 채워준다는 것이었다. 조카는 단지 바구니를 옆에 끼고 다니고, 점원들이 필요한 물건을 다 채워주었다. 조카가 하는 일이라고는 계산기에 찍힌 금액을 지불하는 것뿐이었다. 난 조카에게 그렇게 신경 써준 그분들의 성의에 너무도 고마울 따름이었다.

에필로그

이 모든 일은 내가 한국에 오랜 세월 살면서 겪은 많은 일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도 이 나라에서 내가 겪은 몇몇 중요한 경험을 언급하고자 했다. 한국에 온 지 벌써 많은 해가 지났다. 때로는 내가 외국에 사는지조차 의식하지 못하면서 지내기도 한다. 한국의 문화코드를 이해하고, 한국의 발전에 기뻐하고, 한국의 문제에 가슴 아파하기도 한다. 우리가 소위 ‘문화 차이’라고 잘못 일컫는 것은 다름 아닌 그 나라만의 ‘고유

한 표현'이며, 근본적으로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가령, 양쪽 볼에 두 번 입을 맞추든, 악수를 하든,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하든, 이 모든 인사방식은 결국 같은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즉, 같은 의도의 소산이고 똑같은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다. 새로운 곳에 완전히 적응하는 일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매우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도전 앞에 적극적인 자세와 '특수한 문화'를 배우고자 하는 열린 마음만 있다면 우리가 흔히 문제라고 일컫는 모든 경험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내 나라에서 다른 사람과 만남을 통해 우리의 시야를 넓히면서 동시에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다면 각각의 만남이 하나의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며, 양쪽 모두가 성숙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풍요와 아름다움은 유사함보다는 각각의 사물, 장소, 행위, 사람의 고유함에 있다고 말하고 싶다.

[신찬용 옮김]

도를리스카 일라레스(Dorlisca Hilares) — 페루 출신으로, 한국에서 약 20년 동안 거주하고 있다. 현재는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스페인어 외래교수로 일하고 있다. 옮긴이 신찬용은 평택대학교 평택세계화연구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